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실-공주시 청년센터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협약식 계획(안)

작성일 : 2022.11.22. /작성자 : 충남연구원 강마야

1. 행사명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실-공주시 청년센터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협약식
2. 행사형식 : 협약식, 센터 견학 등
3. 행사목적 : 충남연구원과 공주시 청년센터 간 공동연구, 공동협력 기반 마련
4. 행사배경 : 2022년 하반기 전략과제(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강마야&이도경)
수행과정에서 집담회 행사 진행 협조
5. 행사시기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10시(이후 집담회 행사 예정)
6. 행사장소 : 공주시 청년센터 (충남 공주시 웅진로 142)
7. 참석인원 : 10명(충남연구원 5-6명, 공주시 청년센터 3-4명)
8. 주요 순서 :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인사 및 소개	5분	충남연구원 및 공주시 청년센터
교류협약식 및 기념촬영	5분	충남연구원 및 공주시 청년센터
청년센터 내부견학 및 설명	10분	공주시 청년센터 진행
간단한 티타임	10분	충남연구원, 공주시 청년센터 협조
* 이후 : 충남 청년농업인, 청년활동가들과의 행사 진행 예정	120분	집담회, 라운드테이블 방식 (별도 참석자 있음)

9. 참석자 명단(안)

이름	활동하는 곳(소속)	연락처, 이메일
고승희 실장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041-840-1231
김경태 실장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041-840-1253
전지훈 박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041-840-1183
강마야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041-840-1210
이도경 연구원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041-840-1185
출판홍보팀(정봉희, 김소연)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	041-840-1192, 1237
이다현 센터장	공주시 청년센터	041-852-0871
청년센터 직원	공주시 청년센터	041-852-0871

10. 교류협약서(안)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 공주시 청년센터 청년정책 공동 연구를 위한 교류협약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과 공주시 청년센터(이하 '양 기관')는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충남 지역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청년 정책 분야에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충청남도 청년정책 분야 공동연구 및 연구활동 수행
2. 공주시 청년정책 관련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공동교류 행사 개최
3. 청년정책 관련 우수 연구 성과와 경험, 지식 및 기술 공유
4. 기타 연구,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조정 및 협의이행) ①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제규정을 적용하되, 필요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사업경비) 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또는 종료) 이 협정은 양 기관 중 일방의 서면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일방의 서면 종료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된다.

제7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효력 발생) 이 협약은 양 기관 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협약내용의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25일



사회통합연구실장 **고승희**



센터장 **이다현**

공주시 청년센터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청년정책 공동 연구를 위한 교류협약

공주시 청년센터와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이하 '양 기관')은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충남 지역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청년 정책 분야에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충청남도 청년정책 분야 공동연구 및 연구활동 수행
2. 공주시 청년정책 관련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공동교류 행사 개최
3. 청년정책 관련 우수 연구 성과와 경험, 지식 및 기술 공유
4. 기타 연구,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조정 및 협의이행) ①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제규정을 적용하되, 필요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사업경비) 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또는 종료) 이 협정은 양 기관 중 일방의 서면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일방의 서면 종료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된다.

제7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효력 발생) 이 협약은 양 기관 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협약내용의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25일

공주시청년센터ON

센터장 이다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사회통합연구실장 고승희

충남 청년농업인, 청년활동가들과의 집담회/라운드 테이블 계획(안)

작성일 : 2022.11.22. /작성자 : 충남연구원 강마야

1. 추진근거 : 2022년 하반기 전략과제(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2. 행사명 : “충남 청년들 모여라, 농촌에 살래?”
3. 행사형식 : 집담회, 라운드 테이블 형식
4. 행사목적 : 청년에게 농업으로 유입을 위한 관심과 결심단계에서의 고민, 탐색 현황을 청취하여 실현가능한 농업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모색하는 자리
5. 행사배경 : 2022년 하반기 전략과제(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강마야&이도경) 수행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 필요성
6. 행사시기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이후 점심식사 예정)
7. 행사장소 : 공주시 청년센터 2층 커뮤니티실 (충남 공주시 웅진로 142)
8. 참석인원 : 15명 이내(충남연구원,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공주시 청년센터, 충남 내 청년활동가, 충남 내 청년농업인)
9. 수당지급 : 연구원 직원과 행정을 제외하여 참석자에게 자문수당 지급 예정
10. 주요 순서와 흐름

구분	시간	주요 내용
○ 시작하기	5분	충남연구원 진행(행사개요 설명)
○ 참여자 자기소개하기	10분	공주시 청년센터 협조
○ 왜 모였는지 궁금증 풀기	10분	충남연구원 진행(연구과제 내용, 결과 설명)
○ 논의주제1	20분	청년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시간 “우리는 농업을 이렇게 생각해요”
○ 논의주제2	30분	신규 청년농업인 정책 도입 시 정책방향, 농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말하기 “이런 것을 헤아리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 논의주제3	40분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간략개요 설명(충청남도) “이런 정책은 진짜 이런 게 좋았어요.” “이런 정책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 마무리하기	5분	충남연구원 진행(집담회 정리, 마무리 발언)
총합계	120분	-

※ 9시30분~9시50분, 충남연구원과 공주시 청년센터 간 공동연구 교류협약 체결 예정

11. 식사장소 : 부부식당(한식, 주소 : 충남 동주시 봉황로 94)

*예약자명: 충남연구원

12. 주차장소

- 중학동복지센터(무료): 공주시 감영길 4
- 중동공영주차타워(유료): 공주시 국고개길 11

13. 참석자 명단(안)

이름	활동하는 곳(소속)
배동주 대표	공주 청년 농업 동아리 농UP(공주)
임채섭 대표	베리베리팜 코리아(공주)
박보경 대표	상추연구소(공주)
안경수 대표	공주 청년 농업 동아리 농UP(논산)
이민주 활동가	퍼즐랩 직원
고철용 사무국장	공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사업 (청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농촌활성화 사업 담당)
이다현 센터장	공주시 청년센터
복화경 팀장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박성인 주무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강마야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이도경 연구원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출판홍보팀 (정봉희, 김소연) (협약식 촬영 등)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

청년농업인, 청년활동가들과의 집담회 회의록

일시 / 장소	2022.11.25.(금) 10:00~14:00/공주 청년센터
참석자	충남연구원(강마야, 이도경, 김소연), 충청남도 농업정책과(복화경 팀장, 박성인 주무관), 공주시 청년센터(이다현 센터장 외 직원 5명), 충남 내 청년농업인&활동가(배동주 대표, 임채섭 대표, 박보경 대표, 안경수 대표, 이민주 활동가, 고철용 사무국장)
1. 청년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시간 “우리는 농업을 이렇게 생각해요”	<p>■ 배동주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농 컨설팅 관련지원의 경우, 컨설팅 이후 컨설턴트(멘토)에 대한 평가가 없음. 추후 멘토링 사업으로 일원화 하여 진행할 필요 있다고 생각 ✓ 승계농은 부모와의 갈등말고는 문제가 없음(ex. 급여지급 안하는 문제). 비승계농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 농업인 유입문제 해결 필요. ✓ 신규농에게 꼭 필요한 1t 트럭을 지원하는 사업 필요(읍면 지역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 농촌의 경우 음식 배달비 지원 필요 - 지역 홍보 확대 필요 - 지역선택에 있어 신규농 지원서업이 작은 부분 - 귀농인의 집 수리비 지원(주거 지원) <p>■ 이민주 활동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문제 심각 ✓ 기존 농업의 대체자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고령농업인은 은퇴를 희망하는데 후계자가 없음 - 기존의 청년들은 ‘농업’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함(현재는 농촌이라고 하면, 여유로움과 스마트팜 정도로만 생각함) - 농업과 농촌을 구분하여 접근 필요 -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농촌의 이미지/결혼하기 어려운 이미지 <p>■ 고철형 사무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가진 농촌에 청년이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문제 ✓ 리브투게더와 같은 사업이 정책중심으로만 돌아감(논의구조 아쉬움). 관련인들이 모일수 있는 구조가 아님. 실제 리브투게더에 청년의 의견은 없음 ✓ 좋은사업도 어떤 부서와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짐(사업의 취지와 적재적소의 행정부서/인력 배치 시급) <p>■ 박보경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반장 같은 사업 필요(청년들과 선주민들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 교통약자, 배달비 지원 등 지리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지원 필요 <p>요약▶▶▶실제로 “청년들은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농사를 하고자 해도 비승계형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사기술, 각종 자본투자, 남성중심의 농촌사회 등과 같이 진입장벽 자체가 높다는 인식, 농촌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낯섦, 농사는 어렵고 힘들다는 이미지 등이 있다.</p>
2. 신규 청년농업인 정책 도입 시	<p>■ 배동주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후계농 280명 카톡방에서는 IT나 기계와 관련된 것을 농촌생활과 실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라이브커머스로 보여줌(호스트 없이 청년농업인이 실제로 나와서 진행) <p>■ 안경수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고 귀농한 케이스

<p>정책방향, 농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말하기 “이런 것을 헤아리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계가 어려움을 느낌(ex. 청년후계농 발표는 21년 4월, 그러나 농지은행은 3월이전에 마감) ✓ 비승계농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 청년농업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상주→파주→논산→공주 다양한 지역을 옮겨다녔는데, 청년임대농 농지 면접에서 비승계농 지원금을 노리고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적도 있음 ✓ 모든 정책들은 농부가 되는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그러나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그 외의 일을 같이 하고 싶어함(겸업). 하지만 현재 청년후계농 선정 시 “농업”만 종사해야한다고 규제함 ✓ 유럽 샐러드 채소를 재배중 ✓ 논산은 공주보다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딸기에 집중되어 있어 공주로 지역 이동을 희망하게 됨 ■ 이다현 센터장 ✓ 센터에 찾아오는 청년들을 보면 농업을 하고싶은 욕구가 있지만 모두들 겸업을 생각하고 있음 ■ 배동주 대표 ✓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깊은 계획이 없고 시작해서 처음부터 대출을 안고 시작하게 됨 ✓ 스마트팜의 경우 200평 단동 딸기하우스 1년 임대료가 200만원 정도임. 임대형 스마트팜을 무작정 큰돈 들여서 짓기보다는 지자체 별로 임대해서 선운영후 단계별 지원 시스템 지원이 필요함.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혜자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단위농협마다 대출규정이 달라 신용대출의 한계가 존대함(비승계농의 경우 대출하기가 너무 힘든 실정) ■ 임채섭 대표 ✓ 청년지원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농업 섹터에서 보조사업이 목표인 사람들 굉장히 많음 ✓ 청년농업인의 숫자를 늘이는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잘못됨. ⇒ 실적 컨트롤이 필요함. 정책의 목표(포커스)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 N년 후 매출액 성장률과 정착률 등 실적 확인이 필요함. 사례(case)화 필요 ✓ 실력없는 청년농업인 잘라내기가 필요 ✓ 사업비 투입대비 비효율 요인을 찾고, 잘라내기가 필요 ✓ 큰그림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어 선택과 집중 필요.⇒ 경쟁을 통한 실력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필요 ✓ 돈없고 실력없는 청년농업인은 심자마자 수익이 나는 식물을 심음. ⇒ 단기 수확이 가능한 작물과 장기 수확이 가능한 작물(과수 등)을 나누어 지원사업 구분 지원이 필요 ✓ 비승계농들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게 지원 필요 ■ 이민주 활동가 ✓ 인구수 보다는 인구구조가 중요함(양<질) ✓ 관심과 결심단계의 사업이 없고, 대다수 사업이 H/W 지원 위주임. ⇒ 확실한 지원을 통한 제대로된 기업 육성 필요(ex. 현재 행안부의 퍼즐랩 사업은 실행하면서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음) ■ 고철형 사무국장 ✓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유텃밭 등을 통해 작은 실천과 체험에서부터 관심과 참여도가 상승함 ✓ 복잡한 서류 시스템 개선 필요 <p>요약▶▶▶승계형 청년농업인은 농사짓는 부모와의 갈등 문제가 큰 고민거리인 반면, 비승계형 청년농업인은 농지 기반 부족, 제대로 농사기술을 익힐 교육환경 열악, 영농자금 부족, 관련 정보 부족 등이 큰 고민거리라고 보는 만큼 이것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절실함. 농촌이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와 결합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블루오션이고 농업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창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공간이므로 관련한 정책들이 적극 발굴되어야 한다.</p>
3.	■ 임채섭 대표

<p>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간략개요 설명(충청남 도) “이런 정책은 진짜 이런 게 좋았어요.” “이런 정책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언) 잘된 사기업을 키우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는 농업을 재배하기만 하고, 사기업은 재배기술, 종자 등 전체를 책임 - 비즈니스 모델을 시범운영하여 충남도만의 사업으로 제안 - 잘하는 사람에게 역할분담을 통해 규모의 경제화 실현 - 수익률 일부는 복지기금으로, 수익은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시스템 - 실력있는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행정은 나서지 말 것 ■ 배동주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사례를 최대한 꾸밈없이 홍보할 것 ✓ 귀농의 목적은 ‘돈’이므로 성공사례를 홍보할 것. 반면, 실패사례를 가감없이 노출시킬 것 ⇒ 현장사례나 정착사례를 통한 홍보 ✓ 현실적인 멘토링 지원 필요(농지비용 등) ■ 박보경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에서 농업 이외로 할거리 ,즐길거리들이 많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 ■ 고철형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정의 지원 필요⇒ 활동비나 회의비 같은 현실적 지원이 필요 ■ 안경수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단계별 지원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좋은 스마트팜을 처음부터 경험하면 눈높이가 내려가지 않음. 점진적으로 좋은 시설을 경험하게 해 줄 필요. ■ 이다현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빙랩 사업을 통해 bottom-up 방식의 시작 도입이 필요 ⇒ 다양한 방식의 농촌체험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 ■ 이민주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이 반이다. 목표를 정하면 현장에 뛰어드는 시간이 빠를수록 그것들이 노하우로 쌓이게 된다고 생각 <p>요약▶▶▶지금까지 농업정책은 양적 중심, 결과 중심의 관리만 하였다면 향후 청년농업정책은 질적 중심,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 한사람만이라도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청년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한 열린 공간을 내어주는 등 작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소한 정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청년수요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과 컨설팅을 먼저 지역에 정착한 선배로부터 농사를 짓는 법, 농촌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체험하면서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농촌에서 청년들이 농업으로 성공하는 민간차원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시범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p>
<p>4. 관계자 의견 정리&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인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산업의 비즈니스화를 통해 기틀을 만들겠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매우 강함. “농업은 복지가 아닌 산업이다”라는 기조 ✓ 앞으로 도에서는 현금성 복지지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예정 ■ 복화경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8기 충남농정 핵심은 청년농업인 육성과제이고 여기에 많은 투자와 에너지를 쏟을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의견수렴 자리들을 더 많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은 앞으로 충남 청년 농업정책 설계에 소중하게 활용될 것임 ■ 강마야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부들을 육성하는 정책 못지않게 농촌에 유입하는 정책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

째, 농업 중심의 전략만이 아닌 농촌(공간)중심의 전략, 둘째, 청년농업인 육성 전략만이 아닌 유입 전략, 셋째, 청년농업인을 시기별.단계별.유형별 전략, 넷째, 청년농업인을 승계형 창업농만이 아닌 비승계형 창업농인과 겸업농을 고려하는 전략, 마지막으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층위의 정책과 사업을 도출, 행정 내 통합추진주체 혹은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현장 실행조직.지원조직 등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 도 자 료

제 공 일	2022. 12. 03.(토)	
보 도 일	2022. 12. 03.(토)~	
사진유무	있음	
제공부서	기획경영실 출판홍보팀	
담당자 및 문의처	정봉희	(일반) 041-840-1192
		(H. P) 010-3135-1367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도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청년들 모여라, 농촌에 살래?”

- 충남연구원, 농업과 농촌 활력 위한 청년정책 논의의 장 마련
- 공주시 청년센터와 청년정책 공동 연구를 위한 교류협약도 체결

최근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충남 청년들 모여라, 농촌에 살래?” 주제로 집담회와 라운드테이블을 공주시 청년센터에서 열었다. 이 자리는 청년농부, 청년활동가, 행정 및 연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충남 청년들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갖고 있는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과 해결해야 할 고민과 과제 등을 직접 청취하여 실현가능한 농업정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관련 주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농업을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주제는 청년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시간으로 (주)퍼즐랩의 이민주 프로젝트 매니저와 농업회사법인 베리베리코리아(주) 임채섭 대표는 “실제로 청년들은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한다”며 “농사를 짓고자 해도 비승계형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사기술, 각종 자본투자, 남성 중심의 농촌사회 등 진입장벽이 높다는 인식, 농촌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낯섦, 농사는 어렵고 힘들다는 이미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것을 헤아리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규 청년농업인 정책 도입 시 정책 방향, 농치지 말아야 할 핵심포인트에서는 공주 청년농업동아리 ‘농UP’ 배동주 대표와 안경수 농부는 “승계형 청년농업인은 농사짓는 부모와의 갈등 문제가 큰 고민거리인 반면, 비승계형 청년농업인은 농지 기반 부족, 제대로 농사기술을 익힐 교육환경 열악, 영농자금 부족, 관련 정보 부족 등이 큰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

상추연구소 박보경 대표와 공주시 청년센터 이다현 센터장은 “농촌은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와 결합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블루오션이고 농업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창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농촌의 노인돌봄을 위한 각종 간단한 수리 활동, 밑반찬 만들기 활동,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수단 도움 활동 등 관련 정책들이 적극 발굴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정책은 진짜 이런 게 좋았어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세번째 논의주제에서는 이민주 매니저, 공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고철용 사무국장 등은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양적 중심, 결과 중심의 관리만 하였다면 향후 청년농업정책은 질적 중심,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 한사람만이라도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동주 대표와 이다현 센터장도 “청년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한 열린 공간을 내어주는 등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소한 정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수요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과 컨설팅을 먼저 지역에 정착한 선배로부터 농사를 짓는 법, 농촌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체험하면서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채섭 대표는 “청년농부 육성과 관련된 민간기업 발굴, 수익 일부를 다시 농촌에 공익사업으로 환원하는 등 청년들이 농업으로 성공하는 민간차원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시범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복화경 농촌복지여성팀장은 “민선 8기 충남농정 핵심은 청년농업인 육성 과제이고 여기에 많은 투자와 에너지를 쏟을 계획”이라며 “오늘 나온 제안사항들은 앞으로 충남 청년농업정책 설계에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청년농부들을 육성하는 정책 못지않게 농촌에 유입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중심의 전략만이 아닌 농촌(공간)중심의 전략, △청년농업인 육성 전략만이 아닌 유입 전략, △청년농업인을 시기별.단계별.유형별 전략, △청년농업인을 승계형 창업농만이 아닌 비승계형 창업농인과 겸업농을 고려하는 전략,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층위의 정책과 사업 도출, △행정 내 통합추진주체 혹은 컨트롤타워 마련 및 현장 실행조직.지원조직 등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집담회에 앞서 충남연구원은 이날 공주시 청년센터와 “청년정책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협약”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충청남도 청년정책 분야 공동연구 및 연구활동 수행, △공주시 청년정책 관련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공동교류 행사 개최, △청년정책 관련 우수 연구 성과와 경험, 지식 및 기술 공유 등의 내용이다.

연구문의 : 강마야 연구위원 041-840-1210

